



병살을 향해! 두산 유격수 유지혁(왼쪽)이 15일 광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시범경기 4회말 1사 1루에서 홍재호의 슬라이딩 보다 한발 앞서 2루에서 포스 아웃시킨 후 병살을 잡기 위해 송구했다.

‘157km’ 한승혁 “언젠가 마무리 잡겠다”

2011년 특급 유망주의 부활 신고

프로 입단 팔꿈치 수술 후 제구 흔들
이대진 코치와 이 악문 투구폼 교정
“일단 풀타임 출전…진짜 목표 마무리”

시범경기가 열리는 3월은 대개 투수들이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시기다. 개막에 맞춰 몸을 만드는 상황에 쌀쌀한 날씨도 영향을 미쳐 스피드는 평소보다 다소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KIA 우완투수 한승혁(24)은 시범경기 첫 판부터 전광판에 157km를 찍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2011년 신인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8순위로 지명 받은 한승혁은 덕수고 시절, 메이저리그 진출 얘기까지 나왔던 초특급 유망주였다. 그러나 프로 입단과 함께 팔꿈치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도 강속구는 던졌지만 좀처럼 제구가 잡히지 않으면서 유망주의 껍질을 깨지 못했다.

한승혁의 변신 뒤에는 이대진 투수코치와 함께 해온 투구폼 교정 작업이 있다. 다



KIA 한승혁은 고교 시절 불같은 강속구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깊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14일 아직 쌀쌀한 날씨 속 광주 두산전에서 시속 157km의 광속구를 선보였다. 광주 | 뉴스시스

소 딱딱한 투구폼에서 나오는 큰 팔 스윙. 제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투구 동작을 부드럽고 간결하게 바꾸면서 단점을 최소화했다. 김기태 감독은 “팔 나오는 각도가 정말 좋아진 것 같다. 좀 이른 판단일 수도 있는데 지난 몇 년간 보여준 모습 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칭찬했다.

한승혁은 14일 광주 두산전에서 직구만 14개 던져 퍼펙트로 9회를 막았다. 전력분 석팀 기준 152~156km, 평균 153km의 구속을 보였다. 전광판에는 157km까지 찍혔다. 3월, 그것도 시범경기 첫 날부터 엄청난 스피드였다. 이틀날 만난 그는 “어제는 힘이 평상시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았다. 일본에서 던질 때에도 구속은 잘 나왔는데 더 세게 들어갔다. 몸이 반응한 것 같다. 전광판의 숫자는 처음에 몇 개만 보고 괜히 힘이 들어 갈까봐 더 이상 보지 않았다”며 웃었다.

한승혁은 이날 직구 외에 다른 공은 던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타자들의 타이밍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직구만 던졌다”면서 “사실 어제 밸런스가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타자들이 도와준 것 같다.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스프링캠프 때마다 부상으로 조기 귀국했던 그는 올해는 부상 없이 전지 훈련을 완주했다. 그는 “생각보다 구속이 많이 나오는데 오버페이스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상이 없는 게 첫 번째다. 그리고 제구력을 가장 신경 많이 쓴다”면서 “투구 폼이 좋아졌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팔 동작을 조금 짧게 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좋아진 건 맞지만, 계속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벌써부터 ‘히트 샴푸’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는 올해 KIA 필승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승혁은 “나도 그렇고, 팀도 중요한 시즌이다. 내 자리에서 잘해야 한다. 예전에 요령 없이 열심히만 했다면, 이제 풀타임을 뛸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리고 나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해 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광주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편집 | 직책경 기자 hk7048@donga.com

재기 꿈 김진우,시즌 전부터 수난

첫 등판 부상으로 무산…‘늑연골염좌’ 판정

4선발 유력했는데…개막전 일정 변동 불가피



김진우

올 시즌 선발투수로 재기를 노리는 KIA 김진우(34)의 시범경기 첫 등판이 무산됐다. 갑작스러운 부상 소식에 KIA 선발진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김진우는 1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두산과의 시범경기에 선발등판할 예정이었으나, 경기 직전 등판이 취소됐다. 불펜에서 공을 던지다 왼쪽 옆구리에 통증을 느꼈기 때문이다. KIA 코칭스태프는 두산과 심판진에 양해를 구하고, 2번째 투수로 예정돼 있던 김윤동을 급하게 선발등판시켰다. 김진우는 아이싱으로 통증을 가라앉힌 뒤, 곧바로 구단 지정병원인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다.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 왼쪽 10번 갈비뼈 끝에 위치한 연골 부위, ‘늑연골 염좌’ 판정을 받았다.

KIA 구단은 김진우 상태에 대해 “수일간 경과를 지켜본 뒤, 재검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 김진우의 재활 기간을 예측하기 힘들다. 일단 시즌 개막에 맞추고 있던 일정에는 변동이 불가피하다. 부상 정도가 크지 않아도 다소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김진우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도 타구에 맞는 부상으로 모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적이 있다. 지난달 16일 니혼햄과 연습경기에 선발등판했다 2구째 공을 던지고, 타구에 오른 무릎을 맞아 쓰러졌다.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출발부터 시즌을 망칠 뻔했다.

오키나와에서 마지막 연습경기였던 4일 삼성전에서 2이닝 무실점으로 복귀한 김진우는 2번째 실전피칭을 앞두고 또 한 번 부상에 발목을 잡혔다. 김진우는 2015년 팔꿈치 수술로 FA(프리에이전트) 자격 취득을 2년이나 미뤄야 했다. 올해는 몸 상태가 좋아 유력한 4선발 후보였는데 시즌 전부터 수난을 겪고 있다.

광주 |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MLB닷컴 “박병호 주전 지명타자로 활약할 것”

미국 MLB닷컴은 15일(한국시간) 미네소타의 스프링캠프를 중간 점검하는 기사에서 ‘박병호가 2017시즌 주전 지명타자로 활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된 박병호(31)는 미네소타의 초청 선수로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이다. 9경기에 출전, 22타수 9안타 타율 0.409 OPS 1.391 3홈런 6타점으로 맹활약중이다. MLB닷컴도 “빠른 공에 적응해 삼진을 6개로 줄이고 볼넷을 4개나 골랐다”며 ‘지명타자 후보였던 케니스 바르가스는 마이네리그 옵션이 아직 남아있다’고 전했다.

LA 타임스, 류현진 선발로테이션 진입 가능성 부정적

미국 서부 유력지 LA 타임스가 15일(한국시간) 류현진(30·LA 다저스)의 2017시즌 선발로테이션 진입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했다. LA 타임스는 올 시즌 다저스 선발진을 ‘클레이턴 커쇼-리치 힐-마데다 겐타-브랜던 매카시-알렉스 우드’순서로 예상했다. 류현진에 대해서는 ‘캠프에서 진전을 보였지만 어깨 수술로 공백기가 길어 데이브 로버츠 감독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황재균, 클리블랜드 시범경기서 두번째 멀티히트

초청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스프링캠프에 참가 중인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이 15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 쿿이어 볼파크에서 열린 클리블랜드와 시범경기에서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를 때리며 맹활약했다. 6번 3루수로 선발 출장한 황재균은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시범경기 두 번째 멀티히트며 타율은 0.318에서 0.346(26타수 9안타)으로 올랐다.

www.P LX24.com

에스블루

환절기 아웃도어 활동의 필수 아이템!

스포츠 우븐 바람막이 자켓 1 + 1 29,800원

네이비

카키

코발트

디그레이

스포츠 우븐 바람막이 자켓은 등산·레저 아웃도어 스포츠 활동시 항상 쾌적한 상태로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를 보호하며 비바람을 차단하는 방수·방풍 기능과 더불어 높은 통기성을 유지하고 몸 안의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는 환풍기 같은 효과가 탁월하다. 온기는 안으로 잡아주어 따뜻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며 땀 배출이 신속해 어떠한 환경에서도 최적의 컨디션을 제공해준다. 세련되고 다양한 색상과 유려피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로 봄철 일상복은 물론 등산·레저 스포츠 아웃도어 골프·등산·낚시·사이클·조깅·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께 안성맞춤이다. 첫출시 기념으로 한 장을 사시면 한 장을 더 드리는 1 + 1 파격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1장도 안되는 가격에 2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95, 100, 105, 110

쇼핑몰 : www.P LX24.com

바람막이자켓 1 + 1 ₩189,000 → **₩29,800** (택배비 2,500원 구매자 부담)

입금계좌 : 우리 1005-802-359666 예금주 : 폴룩스(이상재) 전국주문전화 : 1588-4930